

대행 스님

끝간데 없는 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도 즐거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착 놓고 '이 즐거움도 거기서 즐겁게 나오게 했구나.' 또 괴로움도 '거기서 괴롭게 나오게 했구나. 모두가 그놈한테서 나온 거로구나.' 이러면서 지켜보시라 이겁니다. 팥죽 속에서 팥죽 방울이 다 나온 거지 팥죽이 없는데 어떻게 팥죽 방울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렇게 팥죽 방울이 많이 나와서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다 팥죽 솥에서 팥죽 끓듯 하는 살림살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싸 버리고, 보면 없어지고 들으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시는 것이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그 발자취가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그 자취를 걸머지고 다니는 마음이 있다면 내놓으시라구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이가 없고 고정됨이 없고 그대로 여여하게, 나쁘든 좋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부서지든 변하든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끊임없이 지금 흘러 돌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사대가 흩어져도 그 의식은 남아서 또 고생할 바에야 살아서 아주 죽어 버려요. 살아서 죽는 것이 열반이지 그냥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서 마음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죽은 그 마음이, 바로 살아 있는 것도 아니요 죽어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한 주먹이 불끈 솟아서 하늘을 받치고 땅을 한 발로 디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또 한마음으로 모든 수레를 굴린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놓고, 놓는 마음에서 자기가 하는 사이가 없이 한마음 낸다면 그게 법이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 나오고는 "스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정성을 지극하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값싼 마음이라면 어찌 마음공부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다스리는 그 마음의 보배를 간직하면서, 나오는 여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다스리면서 거기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굴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병이 났어도 너무 늦지 않았으면 낫게 할 수 있고 너무 늦었으면 몸을 바꿔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두루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자로서 공덕을 펴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생각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끝 간 데 없이 공덕을 받아서…. 악업도 수미산만 한가 하면 선업도 수미산만 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악업도 없고 선업도 없이 공덕을 받는다면 더욱더 좋구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있지만 이 도리의 공덕을 모른다면, 그리고 무심도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면 앞으로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마음공부 하셨다가 이다음에 몸을 원점으로, 사대로 흩뜨려 보내고도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보배 씨로 출현해서 정말 무심도법의 첨단 과학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왔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능력자가 되고 대자유인이 돼서 자력과 광력과 전력과 통신력을 자재로이 끌어서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그런 연구와 그런 기술과 그런 의학과 그런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도리를 내놓아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교과서로 나가게 한다면, 유의 세계 무의 세계 모든 걸, 즉 말하자면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종합해서 교과서에 실리게 한다면, 또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물리가 터진다면 기술과 과학 분야에 첨단을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배출되어 아마 우죽 쏟아지듯 할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대물리가 터진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또 우리가 우주적으로도 알아야 첨단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물질로써 뭉쳐져 있는데 그 물질로 뭉쳐져 있는 자체가 바로 바탕이 되고 있으니까요. 바탕이 되고 있어요. 뭐냐? 지수화풍 바탕이요. 그 지수화풍 바탕 때문에 이 컵이 나왔다 이겁니다. 컵이 생겼죠. 네 가지가 모두 한데 합쳤는데, 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섯 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도리를, 무심의 도법을 정말 캐치한다면 모든 것을 지수화풍의 그 바탕에 의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으로 능히 들이고 내고 하면서 정신과학으로 일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첨단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산 법문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실천궁행하는 이런 도법을 가르치신 거지 '너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세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끄달려서, 죽었다 해도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의 의식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재생하면 그리로 또 같이하려고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허허허. 그래서 죽게 되면 부처님 성전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살아생전에 독사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리고 곤충한테 물리고 짐승한테 물릴까 봐 무서워하던 의식이 있어서 거길 건너가지 못하죠.

우리가 물질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물질화로 아주 백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체가 없다는 그 소식도 몰라요. 그런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체가 없는 혼백인데도 자기가 체가 있는 양,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배 오기를 기다리며 10년이 되든 오백 생이 되든 거기 섰으니 아니, 배가 옵니까? 글쎄,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찰나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적 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놔라 이 소립니다. 물이 깊어서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만 기다리니 어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